

# 취업률 쫓아...광주·전남 전문대 U턴 272명

### 올 전국 1379명 3년새 25% ↑ ... 간호학과 선호도 최고

### 조선이공대 생명환경공학과 올 76명 재입학 지역내 1위

# 지방 사립대(4년제)를 다니던 A씨는 올해 초 동강대 간호학과에 재입학했다. A씨는 취업 지름길이라며 전문대로 '유턴'한 케이스다.

B씨도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자퇴하고 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2년제 전문대인 조선이공대 생명환경공학과에 입학한 '유턴(u-turn)족(族)'이다. B씨는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4년제 학사 학위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전문대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전문대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4년제 대학을 다니던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유턴족'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 일부 학과들의 경쟁률도 치열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10일 한국전

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2년~2015년 일반대학(4년제) 졸업 후 전문대학 유턴 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다니던 전문대에 입학한 학생은 올해까지 5017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전문대 유턴입학생'은 지난 2012년 1102명에서 ▲2013년 1253명 ▲2014년 1283명 ▲2015년 1379명으로 증가 추세로, 2012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3년 만에 25%(277명)가 늘어난 셈이다.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4년제 학사 학위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게 이들 생 각이다.

4년간 유턴 입학생 중에는 3년제 전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2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2년제 전문대는 1619명, 4년제 전문대는 1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는 광주·전남도 확인됐다. 지난 2012년 4년제를 다니거나 졸업한 뒤

### 4년제 대학 졸업 뒤 전문대 유턴 입학 현황

	2015년	2014년
광주		
광주보건대	14	16
기독교간호대	17	14
동강대	14	11
서영대	17	20
조선이공대	76	84
조선간호대	27	30
전남		
고구려대	17	7
순천제일대	11	3
청암대	3	5
전남과학대	6	4

전문대로 다시 입학한 '유턴입학생'은 185명이었지만 2013년 231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27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을 다니던 재입학한 76명의 '유턴족'이 조선이공대학으로 몰려 가장 많았다. 조선간

호대학(27명), 기독교간호대(17명), 동강대(14명) 등으로의 재입학도 많았다.

지난해 조선이공대의 경우 일반대학을 졸업했거나 중도에 포기한 84명의 학생들이 재입학, 취업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선간호대도 4년제 대학을 다니던 전문대로 재입학한 학생이 지난해 30명으로 집계됐다.

전문대 유턴입학생의 인기 1순위 학과는 간호학과로 3년간 1314명(36%)이 입학했다.

광주·전남지역만 놓고 보면 조선이공대 생명환경공학과가 '유턴족'들이 몰리는 대표학과로 꼽혔다. 올해에만 해당 학과에 59명, 지난해도 62명이 재입학했다. 조선간호대·동강대 간호학과도 '전문대 유턴입학생'이 몰렸다.

유 의원은 "취업난으로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전문대 입학이 매년 증가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근본적인 청년취업난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2 해질 18:46  
달출 04:10 달짐 17:33

### 교통 사고 주의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끼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림	18/27	보성	흐림	14/26
목포	흐림	18/25	순천	흐림	17/28
여수	흐림	20/26	영광	흐림	16/26
나주	흐림	15/27	진도	흐림	16/25
완도	흐림	18/26	전주	흐림	16/27
구례	흐림	14/27	군산	흐림	17/26
강진	흐림	15/27	남원	흐림	14/27
해남	흐림	15/26	축산도	흐림	20/23
장성	흐림	14/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남서~서	0.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1.5	서~북서	1.0~1.5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06	06:25	13:11	18:31
여수	08:04	01:57	20:24	14:01

### 주간 날씨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8/21	17/25	15/27	16/27	18/27	18/27	17/27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50
- 빨래 90

### 대학교수들 '모교사랑'

### 국립대 기부 1~5위 기록

### 전남대 최고 기부는 5억원

국립대학에 거액을 쾌척하는 기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1~2015년 국립대학별 개인 기부자 현황' 자료는 지역 대학생, 모교 후배들을 위해 금전적 기부를 하는 선배들의 면면을 엿볼 수 있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5위까지 개인 기부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유명로펌 변호사를 비롯, 명예교수, 병원장,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고루 포함됐다. 5년간 최고 기부액은 5억원을 낸 기업가였다.

광주교육대는 지난해 30억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기부자가 최고 기부자로 파악됐고 1억원을 기부한 미술관장도 있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이 기부자 1~5위에 오르는 경우도 많아 '모교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목포대의 경우 5년간 1~5위 기부자 25명 중 20명이 모교 전·현직 교수로 파악됐고 목포해양대도 5년간 17명의 전·현직 교수가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웃사랑으로 빛났어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 봉사자들이 10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지사 다목적강당에서 추석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1000가구에 전달할 송편을 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국 '톱 100' 중학교 광주·전남 2곳 뿐

광주 문성중과 목포 흥일중이 지난해 실시된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영·수 과목의 우수학생자 비중이 많은 전국 상위 100개 중학교에 꼽혔다. 광주·전남 학교에서는 단 2곳만 포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14년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80% 이상인 '우수' 학생을 합산한 비율이 상위 100개교 중 서울은 42곳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도가 31곳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100위는 국·영·수 과목의 우수학

력자(학업성취도 80% 이상인 학생) 비중의 합이 높은 순으로 중학교 순위를 매겨 분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문성중(광주), 목포 흥일중(전남)이 상위 100개교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경북 각 6곳, 인천·울산·대구 각 3곳, 부산 2곳 등으로 나타났다. /김지용기자 dok2000@

### 광주시 '5·18 폼페이' 안참는다

### 윤장현 시장·지역 원로 등 대책위 개최 강력 대응키로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폼페이·비하하는 역사왜곡 행위와 '임의적인 행진곡' 5·18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10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지역 원로들과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23명의 각계 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제8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와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5·18당시 복면 쓴 시민군에 대해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73)씨에 대해 법률 대응을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전복이적죄에 연루시켜 종북으로 몰고 5·18민주유공자를 폭동자로 비하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홍두 고양시 시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34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성명을 발표

하고 자진사퇴와 새누리당과 고양시의회에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1987년에 발간한 '광주민주항쟁 기록사집전' 내용중 일부가 북한측과 공모해 제작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도 오는 13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5·18기념재단, 5월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왜곡, 폼페이에 앞장서고 있는 지만원씨 등에 대한 법적대응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최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대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만장
- 배수갑문
- 양수장
- 저수지
- 골프장
- 상하수도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주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검색

Daem 물관리자동화

주식회사 대영 daeyoung (062) 670-0300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특별금리상당)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80%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까지~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의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자금대출 최대 2천만원  
임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까지 가능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북광주신협 일곡지점 572-8167